



"시어머니 죽으라고 축수했더니 보리방아 물 부어 놓고 생각한다"

뜻: 밋고 싫었던 사람이나 물건도 막상 없어지고 나면 아쉽고 그리워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후회 · 부재 · 필요성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시	어	머	니	↓	죽	으	라	고				
축	수	했	더	니	↓	보	리	방	아			
물	↓	부	어	↓	놓	고	↓	생	각	난	다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시	어	머	니	↓	죽	으	라	고				
축	수	했	더	니	↓	보	리	방	아			
물	↓	부	어	↓	놓	고	↓	생	각	난	다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시오미니] [죽으라] [보리방아] [물부어] [놓고] [생 각] [난 다]

웹에서 보기

